

## 제 19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 「 기로에 선 한일관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프로그램

주 최	( 공재 )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SGRA] ( 일본 )
공 최	( 재 ) 미래인력연구원 ( 한국 )
일 시	2021년 5월 29일 ( 토 ) 14 : 00 ~ 16 : 20
개최방법	온라인 ( Zoom 웨비나 ) 형식으로 개최
언 어	한국어 · 일본어 ( 동시통역 )
개 요	<p>사 회 : 김용희 (인하대학교 교수)          개 회 사 :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 · SGRA 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부 강연과 코멘트</b></p> <p>강 연 1 : 「기로에 선 한일관계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본의 입장에서 」          강 연 자 : 오키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코 멘 트 : 심규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p> <p>강 연 2 : 「기로에 선 한일관계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의 입장에서」          강 연 자 :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코 멘 트 : 이쥬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p>
	<b>제2부 자유토론</b>
	<p>코멘트 ( 각 5 분 ) 김지영 (한양대학교 부교수)          고히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p> <p>강연자와 토론자의 자유토론 20분</p>
	<b>제3부 질의응답</b>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 이혜리 (한국외대), 안영희 (한국외대)
타임 테이블	<p>14:00            개회          14:00 ~ 14:05  개회사          14:05 ~ 15:05  제 1부 강연과 코멘트          15:05 ~ 15:45  제 2부 자유토론          15:45 ~ 16:15  제 3부 질의응답          16:15 ~ 16:20  폐회사          16:20            종료예정</p>
참 가 비	무료

## 포럼의 취지

과거사, 경제, 안보문제가 연계된 복합방정식을 현명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한일관계가 파국을 면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다. 한일 상호의 피로감도 한계에 달했고, 한일관계의 복원력 저하, 한미일 삼각관계의 균열 조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일본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정부는 일본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한일관계 연구자들에게는 무엇이 가능한가? 본 포럼에서는 한일관계의 전문가를 한일 각각 4 명씩 초청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한일의 기초보고를 토대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행한다.

### 강연내용 : 「기로에 선 한일관계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본의 입장에서」

아이덴티티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일역사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과 사죄와 반성이 결여된 국교정상화에 있다. 일본인은 그러한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분노는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역사비판은 중국의 경제대국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한국 사법부의 적극적인 정치개입이 역사마찰을 확대시켜 그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했다. 한편, 그것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역사관을 가진 아베수상이 역사마찰과 대한무역관리를 연계했다. 향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해 한국인의 자신감이 강화되었다. 선진적인 정보기술의 보급,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융성, 1인당 GDP와 국방비의 상승 등이 그러한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탄생과 한일의 세대교체가 상호관계의 불행한 역사의 청산을 촉진할 것이다. 바이든정권의 출범은 새로운 국제시스템의 변동을 예감하게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정하고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단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양국은 미중 대립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며,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들파워이다. 전략공유가 정착된다면, 그것이 한일의 상호 이미지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선도할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재확인인 당면의 목표가 될 것이다.

#### 강연자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1945년생. 한일포럼 일본측 좌장. 전공은 국제정치론 및 한국·북한정치론. 게이오대학 대학원 재학중 연세대학교에 교환유학 (1972-74년).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1985년). 법학박사. 게이오대학 지역연구센터 소장, 법과대학 학장 역임. 한일공동연구포럼 일본측 좌장 (1996-2005년), 제1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간사 (2002-05년),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일본측 위원장 (2009-13년) 등을 역임. 규슈대학 특임교수 (2011-14년). 저서에 『조선전쟁』(1986년), 『한국분단의 기원』(2018년), 편저에 『포스트냉전의 조선반도』 등. 대한민국수교훈장 수상 (2020년).




## 강연내용 : 「기로에 선 한일관계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역사, 외교안보,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은커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대일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도쿄 축을 활용한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러 외교 그리고 대북관계를 구상하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한일은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전 시대 서유럽(독/불/폴란드) 국가들이 미소가 이념적, 군사적 대립을 벌이는 동안 스스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화해로 극복하고 유럽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간 역사적 과정은 미중 양강 구도에 끼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여론은 중시되어야 하나 역으로 국민 정서,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는 대일 과거사 외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냉철한 국익의 계산과 철저한 전략적 사고로 대일외교를 정립해야 하며 그 기반은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읽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강연자 이 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일본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 수여. 1998년부터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을 역임. 『일본공간』의 편집인.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단저), 『한일관계사 1965-2015 정치』(공편) 등의 다수의 논저가 있음.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평통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 전공 분야는 일본정치외교, 동북아 국제관계이며 특히 한일관계 및 한일외교사.

신청방법 등	
참가신청방법	<p><a href="#">여기</a>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QR 코드에서도 액세스 가능합니다.</p> 
문의처	<p>SGRA 사무국 <a href="mailto:sgra@aisf.or.jp">sgra@aisf.or.jp</a> 당일 기술지원도 이곳으로 부탁드립니다.</p>
질문과 코멘트	<p><b>【당일, 제 3 부 질의응답 시간의 질문과 코멘트를 모집합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문과 코멘트는 웨비나 화면의 「Q&amp;A 기능」을 사용하여 이벤트 개시 직후부터 수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li> <li>2. 성함과 질문·코멘트를 5 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li>3. 질문과 코멘트는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Q&amp;A 회답란에 표시됩니다.</li> <li>4. 질문에 대한 강연자나 사회자의 답변은 Q&amp;A 회답란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 3 부의 질의응답 시간에 구두로 답변하게 됩니다.</li> <li>5.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이나 코멘트를 번역 또는 답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li> </ol>
양케이트	<p>당일 웨비나 종료후 양케이트가 표시됩니다. 향후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p>